2024년 3월 둘째 주 가정예배 (March Week 2)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

God Our Strength and Support

(시편 46편 1~3절 / Psalm 46:1-3)



기도 | 가정에서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Prayer - Please have a family member open up with prayer.



말씀 | 시편 46:1~3

-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 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말씀 | Psalm 46:1~3 (ESV)

- 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 2.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s way, though the mountains be moved into the heart of the sea,
- 3.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though the mountains tremble at its swelling. Selah

말씀 | 본문이해 (Understanding the Scripture)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도 땅이 뒤집히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심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분 백성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The Psalmist confesses that God is the safest refuge. There are severe trials in the lives of God's people, such as the earth turning over, storms raging, and the waters rushing in, but the reason we can be fearless in those situations is because the living God gives His people strength and support.

나눔 |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어요.

1.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1절)

1. What does the psalmist confess God to be like? (v.1)



나눔 |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어요.

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The Psalmist confesses God as a refuge, strength, and help. Share how you would describe God.



Say out loud the character of God that you have come to know through your family worship today, and give thanks that He is our God.



한 문장 감사기도

- 1. 모든 사람이 한 명씩 돌아가며 한 문장으로 감사기도해 주세요.
- 2.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날 때마다 모두가 "아멘"을 외쳐주세요.
- 3. 제일 마지막 사람은 한 문장 감사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무리해 주세요.

One Sentence Prayer of Thanks -

- 1. Each person will go around saying a one sentence prayer of thanks.
- 2. Every time a person finishes his/her prayer, everyone will say "Amen".
- 3. The last person will end his/her prayer with "In Jesus name we pray".

│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Young Joshua Project

가정예배 출석체크

'출석체크' 바로가기

